



천주교 전주교구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남 종 기 고 스 마
 보좌신부: 김 두 열 아우구스티노
 수녀: 강 도 순 레 지 나
 수녀: 최 윤 희 글 라 라
 사목회장: 김 평 기 토 마 스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010-5023-6908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2022년 교구장 사목교서 -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테살5,17)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오후 6시(학생미사)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 교황님의 기도 지향		
				젊은이들의 신앙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수요일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화요일 저녁 7시30분~8시30분					

◆ 레지오마리아 훈화(5/23~5/29)_보좌신부

“신뢰로 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이 일곱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진 간략하면서도 담대한 기도,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아무런 전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호감을 얻으려는’ 공식들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경외심과 순종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주님께 기도하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매우 간단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자녀의 친밀함과 신뢰를 표현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인간의 구체적인 현실에 그 뿌리를 둡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빵을, 일용할 양식을 청하라고 합니다.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청원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란 삶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곧 믿음은 다른 모든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야 찾는 ‘장신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삶 자체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기도는 인간의 배부른 삶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굶주리고, 눈물 흘리고, 투쟁하고, 고통받는 모든 곳에서 기도가 자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원초적인 갈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질문이나 청원은 삼가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법을 익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고통, 모든 불안감을 하늘을 향하여 쏟아 내고 대화를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마치 군중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눈먼 바르티메오가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향을 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치유된 결정적인 요인은 많은 군중의 ‘상식’보다도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외친 그의 청원, 그의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혹자는 청원 기도는 믿음의 나약한 형태이며, 어떤 청원의 중압감 없이 하느님을 찾는 순수한 찬미가 진정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청원 기도는 진정하고 자발적인 기도입니다. 청원 기도는 선택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을 믿는 신앙 행위입니다. 작고 죄 많고 보잘것없는 내가 품고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청하는 기도는 매우 고귀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가없이 바라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당신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당신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저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따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느님을 “아버지”, “아빠”라 부르며 신뢰를 가지고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누릉 천하	수진가새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Roastery cafe Soul & Design Soul	전주대건신협
수제 누릉지 전문점 명절 선물세트 각종 행사 답례품 김형태(울리아노) 박태연(마르타) 풍남문 정문 앞 H.P.010-8642-9105 ☎282-9005	약사 이현명(사도요한) 약사 신지현(베르베루아) 덕진구 세병남로25 (송천동2가) (에코삼성정형외과, 에코라인 의원, 에코롯데리아건물) ☎272-8066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한상숙(베로니카) 김정민(데레사)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디자인과 커피가 공존하는 Soul 서승희(클레멘시아) 조성휘(안드레아) 진버들6길8-10(아중리) H.P. 010-2747-0989 H.P. 010-3683-0050	예금상당, 대출상당은 전주대건신협에서! 본점 ☎288-0191 이사장 송각호(바오로) 010-3675-4297

